

한국의 사회·문화·제도 속에서의 여성의 무력화와 세력화(Empowerment) 전략

김 기 범[†] 김 지 영 김 양 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세력(power)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무력화되어 왔음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자 했다. 먼저, 힘 혹은 세력이란 무엇인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힘에 대한 정의 및 개념화가 서구 중심의 과학철학 및 주류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대안적인 개념화를 위해 힘에 대한 정의 및 개념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줌마 담론에 숨어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여성의 무력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한국의 사회,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세력화(empowerment)하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하였다.

주요어 : 세력(화), 무력화, 아줌마, 사회제도, 문화

[†] 교신저자 : 김 기 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 66purple@hitel.net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진 세력(혹은 힘, power)에는 차이가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세력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여성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나 여성장관, 여성 정치인들에 관한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성평등, 여성의 지도력, 여성의 힘에 관해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의 힘이 가정이 아닌, 공공의 장에서 실현되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속에서 무엇이 여성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원인에 관해 사회-문화-제도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힘(혹은 세력, Power)의 개념적 정의

여성 학자들은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주류 학자들의 관점 및 접근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금까지 학문이나 지식세계에서 남성이 지식의 생산자로 여겨져 왔고 남성에게만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생물학적으로나 혹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격의 형성과정 상 일반적으로 ‘정상(normal)’으로 여겨진 남성과 다르거나 혹은 차이를 보이는 특별한 경우로 여성(들)을 취급해 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¹⁾(Mahoney, 1996; Sprague

1) 전통적인 주류 학자들과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객관적(실증주의적 인식론은 경험적 현상의 측정 표준화와 연구자가 측정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함)이어야 하고, 현상을 연구하거나 접근함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맥락으로부터 현상을 분리시키고 추상화시킴으로써 객관적으로 사실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심신 이원론, 천성과 후천성, 공과 사, 여성과 남성 등의 논리적 이분법을 통해 사실(비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함으

& Hayes, 2000 참조) 따라서 그들은 모든 지식이 라는 것은 환경, 역사, 문화와 이해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에 심리학 분야에서 심리적 사실(psychological reality)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이론체계에서의 논란과도 일치한다. Choi(1998; 최상진, 2000 참조)는 미국의 주류 심리학(실증주의적 실험심리학)이 탈맥락적, 탈문화적인 단편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고 반면에²⁾, 문화심리학은 그 문화권에 적합한 설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범적 지각, 인지구성, 적절한 정서 및 행동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후자의 관점은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식의 구성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세력 혹은 힘(power)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로써 측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On of the problems that I encountered in studying cross-cultural psychology is that many terms and concepts typical of American (Western) experimental psychology are out of context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sometimes even fragmented and, what is more, they are used as parameters in comparing different cultures as they stand. Although these parameters are very important for American psychology in studying American psychological phenomena, they may not be appropriate and/or meaningful for accounting for the psychology of Koreans in many cases,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sense knowledge of Koreans (Choi, 1998).

사물로서의 힘(Power as a thing)에서 상호작용 속에서의 잠재적 역량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이 주류 심리학에서는 사람(혹은 사람과 관련된 현상)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에서 태도, 성격, 동기, 욕구 등의 속성(attributes)이나 특질(traits)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추상화시켜 보는 것처럼, 힘도 어떠한 대인 관계나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보았다(Hartsok, 1983, Sprague & Hayes, 2000에서 재인용). 또한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맥락과 분리시켜 추상화함으로써 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원리나 법칙을 적용하거나 추출할 수 있고, 사회 제도나 조직 등은 사물(entity)과 같이 스스로의 운영 원칙을 갖는 자율적 존재로 보아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켰으며,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따라서, 힘은 개인이 가진 추상화된 대상물(objects)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맥락을 초월한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여 일반화할 수 있으며, 사회나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또한 객관화와 탈맥락화는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조직화하는 기존의 지식체계를 가속화시켰다. 이분법적 사고는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에 반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더 중심적이며 가치로운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전자에 일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특성이 있다(Farr, 1996; Robinson, 1992; Sprague & Hayes, 2000). 이러한 논리는 서구의 지식체계의 구성원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논리는 마음과 신체, 천성과 후천성(육성), 공적 대 사적, 여자 대 남자, 백인종 대 유색인종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두 가지의 대상 중 마음이나 남자 혹은 백인종 등이 중심이 되고 가치로

운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반하는 신체, 여자 및 유색인종은 주변부의, 덜 가치로운 것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힘이나 세력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여성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힘을 지배층(예를 들어, 자본가들)이 피지배층(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갖는 것으로, 피지배자를 착취하고 피지배자로부터 응종(compliance)과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자본가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힘은 여성보다는 남성,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들이,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종에 속한 것으로, 힘이 있는 대상이 힘이 없는 대상으로 통제하거나 복종하게 하려는 도구인 것이다.³⁾

그러나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힘을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capacity)으로 보는데, 이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자본이 아니라 그러한 재화를 사람들의 생활속에 쓸모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으로 보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은 힘을 소유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혹은 상호작용 속에서 부여되는 혹은 주어지는 역동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힘은 조직이나 제도 혹은 관계 등의 맥락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며, 조직이나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prague & Hayes, 2000).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연속선상에서 대비되는

3) Sprague와 Hayes(2000)는 학계에서의 힘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power over)를 2세대 접근 방식으로, 힘을 사물의 속성으로 보고 이를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entity),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접근 방식을 1세대 접근 방식으로, 힘을 사회적 상호작용속에서 활성화되는 잠재적 역량으로 보는 관점을 3세대 접근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것으로 보고, 분석의 단위를 개인보다는 관계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힘의 개념을 주류 학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를 심리학에서 실증주의적 주류 심리학과 문화심리학적 관점을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다음에서는 세력화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여성주의자들의 관점을 대비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세력화하기(Empowerment)

세력화의 개념은 기존의 주류 심리학에서 태도, 능력이나 행동 등과 동일시되어왔고, 개인(self)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산물(mind set)로 보았으며, Beck(1994)은 비록 행위의 결과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주의자들이나 지역사회 심리학자들은 세력화를 심리적 상태로 보고는 있으나 세력화과정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삶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고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환경의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가능해지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을 조직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공유하거나 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세력화는 가능해진다.

또한 힘이 작용하거나 활성화되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관계나 사회제도내에서의 역학 등 사회적 맥락내에서 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고, 세력화의 개념은 반드시 생태학적 측면에 근거한 개념이어야 한다. 환경이라는 것은 때로는 장애(예를 들어, 차별, 가난, 신체적 장애 등)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

회적 지원(예를 들어, 사람들, 자원, 정책, 문화적 가치 등)이 되기 때문에 세력화는 기술을 공유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타자의 독특성이나 요구, 능력을 인정하고 타자의 관점이나 이해를 수용하며, 타자의 관심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적 관계이어야만 한다.

한국문화에서의 아줌마 담론을 통해 본 여성의 무력화

일반적으로 성(gender)의 하위유형으로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이나 성적 가치에 따라 미혼이나 기혼으로 분류되며, 기혼 여성은 다시 나이와 성적 가치 및 남편의 지위 및 계층에 따라 아줌마와 사모님으로 호칭되거나 분류되고 있다. 또한 아줌마들은 일반적 사회적 상황에서 마주치는 외집단 성원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한규석, 1995; Allport, 1954; Fiske, 1998; Franzoi, 1996, Taylor, Fiske, Etcoff & Ruderman, 1978; Taylor, Peplau, & Sears, 2000),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이다.⁴⁾

4) 김명소 등(1999)이나 최상진 등(1999, 2001)의 연구는 20대에서 50대까지를 아줌마의 연령범위로 보고 있지만, 현대사회가 산업화, 고령화 되어갈수록 아줌마 층도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재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겪게 될 5, 60대 여성들이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 그들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줌마라는 같은 호칭

한국사회에서 아줌마에 대한 담론은 아줌마에 대한 조소와 비난으로 시작되었는데, 여성 중에서도 가정주부들, 특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남편들의 사회적 지위도 중하류 계층을 이루고 젊음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중년 여성들에 대한 농담과 멸시는 각종 드라마나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다(기타 자세한 논의는 최상진 등(1999, 2000, 2001 참조하기 바람).

최상진 등은(1999a, 1999b, 2000, 2001)은 아줌마 현상에 대해 기호학과 심리학으로 분석해 사회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비하의 심리가 친인척인 나이든 여자를 호칭하던 친근하고 푸근한 정서를 담은 아줌마 원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여성 자신도 결혼과 동시에 자기 이행적 예언을 통해 아줌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한 바 있다⁵⁾. 그들은 또한 한국의 여성 차별적 현실은 아줌마라는 언어의 왜곡을 통해 가정주부들을 폄하하게 하고, 나아가 여성 전체에 대한 멸시로 이어져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아줌마 표상’을 한국인의 의식에 심어 놓은 것으로 보았다.

아줌마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 및 차별은 한국

하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심리적 경험을 할 수 있는 2, 30대 아줌마와 4, 50대 아줌마간의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 5) 최근에는 아줌마에 대한 긍정적 담론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폼짱 아줌마’의 등장은 사람으로서가 아닌 아름다운 몸을 가진 아줌마로서 그려지고 있다.
- 6) 아줌마는 (어른 여자를 일컫는) ‘아주머니’를 홀하게 또는 정답게 이르는 말이다. ‘아주머니’는 1) 부모와 같은 항렬의 부인, 2) ‘아저씨’의 아내, 3) 형수를 친하게 일컫는 말, 4) 자기 또래가 되는 사람의 아내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 5) 어른인 여자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동아메이트 국어사전, 1996)이다.

사회의 사회, 경제, 역사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데, 아줌마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 한 가지는 과거에는 여성적이었던 아줌마들이 사회 활동의 과정에서 남성성 행동(경쟁성, 성취지향성, 공격성 등)의 습득과 관계된 해석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아줌마 상(상냥함, 인심 좋음 등)을 가지고 있었던 비아줌마 집단이 이러한 남성성 행동에 대해 ‘아줌마답지 않다’는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여 아줌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낳게 하였다는 해석이다.

7, 80년대의 경제적 풍요를 통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중산층의 주부들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했는데,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사회적 시스템이 이들의 취업을 뒷받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부동산이나 증권에 몰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마스크이나 비아줌마 집단들은 이러한 아줌마들의 활동을 과대포장해 아줌마들을 자기 지식, 자기 남편밖에 모르는 존재들로, 치맛바람으로 교육을 타락시키고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뒤튼든, 사회에 해악적 집단으로 변모시켜 아줌마 본래의 어머니 같은, 친척 아주머니 같은 푸근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상실케 했다(최상진 등, 200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계층이나 남편의 직업에 따라 아줌마와 사모님으로 분류되는 존재이자 여성 자신도 동성을 만나면 상대가 사모님 군에 속하는지 아줌마 군에 속하는지 재빨리 판단해 그에 기대되는 혹은 상응하는 행동을 한다. 최상진 등(2001)은 한국 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적 호칭이자 하위 분류 유형인 아줌마, 사모님, 아가씨, 어머니의 네 호칭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사회적 표상을 자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아줌마-사모님의 대칭은 남편의 계층이나 신분에서 대비되는 호칭이라면, 아줌마와 아가씨는 연령과 신체적 대비에 의해 구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줌마와 엄마의 대비에서는 아줌마가 사모님이나 아가씨와 대비될 때 나타나는 특징인 엄마의 속성(예를 들면, 따뜻하다, 포근하다 등)이 없어지고 아줌마의 속성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사회 상황에서 제 3자로 타자화되는 아줌마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내집단-외집단 성원인가의 인지적 범주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중 아줌마 집단으로 분류되는 당사자들과 여대생 모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 스스로 그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의 의식속엔 아줌마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예를 들면, 뽀글뽀글한 퍼머머리, 폭퍼진 몸매, 짙은 화장, 반짝이는 촌스러운 옷 등)를 담지하고 있어 현물적 존재로 표상화되어있다. 게다가 아줌마는 이미 결혼을 한 남의 여자라는 인식속에 성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대상으로 지각되고 있다.

또한 아줌마 집단의 사회적 행동 양식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눈치를 안보거나 체면을 차리지 않는 행동,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 등은 여성들 스스로 개선해야 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Hamilton(1981)에 의하면 사람들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공유된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외집단 구성원들의 고정관념화된 행동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ilbert, Fiske, & Lindzey, 1998에서 재인용). 따라서 아줌마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상황에서 아줌마

의 행동을 보게되는 경우, 그러한 행동은 현출성을 가지고 그들의 의식 속에 뚜렷이 각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어머니, 아내와 같이 거리에 나섰을 때, 그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새치기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을 매도하거나 아줌마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어머니가 물건값을 깎고 덤을 좋아하는 것은 알뜰함이고, 가족을 위하는 알뜰한 행위지만 시장에서 모르는 여자가 끈질기게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은 억척스러운 아줌마 행동으로 지각된다.

한국 문화에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줌마들은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신분과 지위에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 규범과, 타인으로부터 확인되고 자신이 자의식한 아줌마 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 할 때 나타나는 행동간에 커다란 괴리를 경험한다. 한국의 아줌마들은 이 괴리를 일치시키려는 의식보다는 두 세계를 왔다갔다하면서 동시에 살아간다. 가정에서는 현모양처로 행동하다가 계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에 가거나 관광버스를 타면 아줌마 집단으로 퇴행한다. 가정에서는 대소사의 권위자로 행동하지만 가정밖에 나아가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체에라도 부닥치면 당황하거나 주눅들어 하기 일쑤다.

그러므로 아줌마의 행동양식과 의식의 표출은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등, 1999b). 즉 집안에 있는 나의 어머니나 부인도 집밖으로 나가면 아줌마가 되고, 남의 어머니나 부인은 나에게 아줌마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나의 어머니가 춤을 추면 멋, 남의 어머니가 하면 춤바람이라는 식으로 아줌마 집단을 인식한다. 따라서 ‘아줌마 현상’은 범주화와 편견,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 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누명 씌우기’와 아줌마인 여성들 스스로의 자기 이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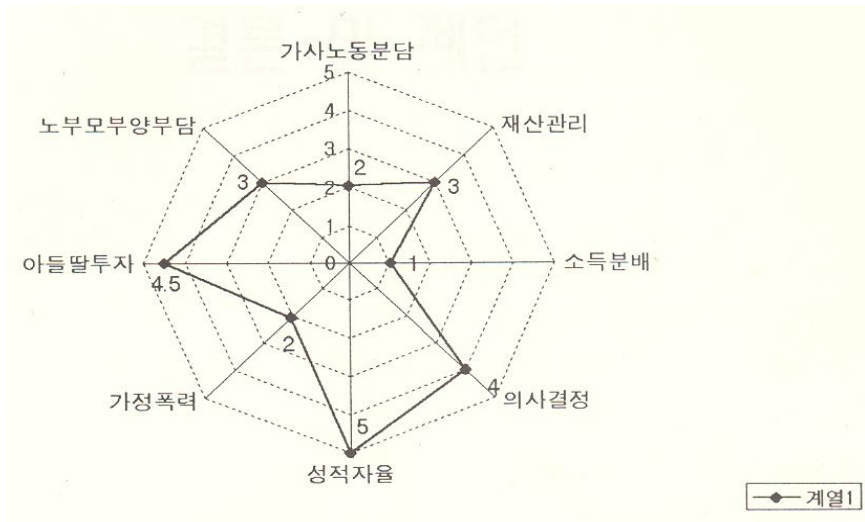


그림 1. 가정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2001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아줌마 담론 속에 숨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류나 남성들이 소수집단이나 여성들을 통제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나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의 세력화를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아줌마 담론은 아줌마 속에 있는 엄마의 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는 담론이 활성화되었고, 아줌마들 스스로도 지역사회나 사회 전반에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온라인 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닌 서로 힘을 부여하여 세력화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아줌마들의 세력화를

개인적 수준에서, 가족이라는 사회제도 속에서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여성 속에서 가능해 보았다. 개인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심리학 분야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차도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태도, 관심, 기술, 성격의 성차를 유지시키는 것을 알려져 있다(Taylor, Peplau, & Sears, 2000). 그러나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상황속에서 성유형화에 따른 차이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성, 동조, 비언어적 의사소통, 성욕 외에 기본 능력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험적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가족내에서도 최근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과거와 달리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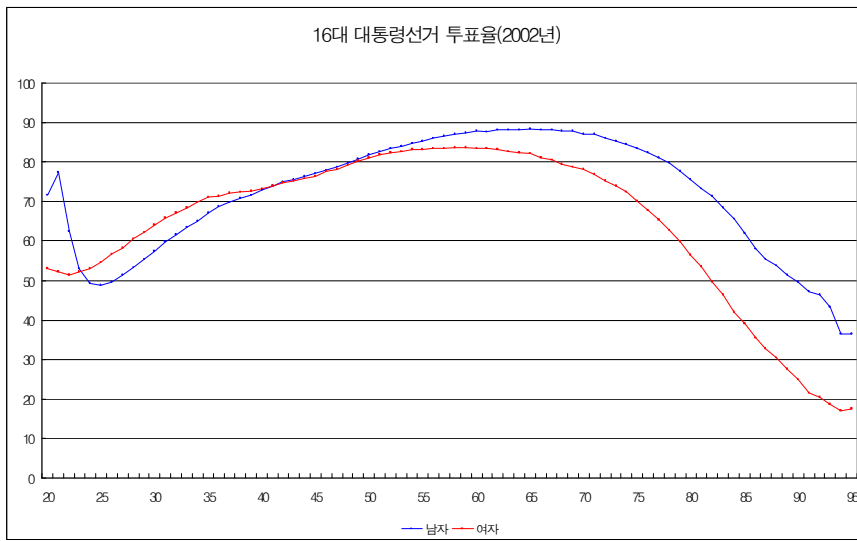


그림 2.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국민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문화교차학과 홈페이지 자료실

있다. 2001년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그림 1 참조), 여성들의 의사결정, 성적 자율성 및 자녀들에 대한 투자 영역에서 상대적 신장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아 그 비교우위를 알 수 없으나 재산이나 의사결정 및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영역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 수준에서 여성의 힘을 가늠해보거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여성유권자 수이다. 여성 선거인수가 남성 선거인수보다 약 60여만 명이 많았는데, 20대 초반에서 40대까지 여성의 투표율이 많은 반면 40대 이후는 남성의 투표율이 높았다(그림 2 참조). 이는 한국의 여성관련개발지수(GDI)는 175개국 중 30위인 반면, 여성권한척도(GEM)⁷⁾에서는 70개국 중 63위로 나타나 여성들이 의회나

전문직 진출 등 정치, 경제분야에서 세력화되지 못하고 있음(박숙자, 2003)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집단으로 세력화

7) 여성관련개발지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로도 해석함)는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한국은 2003년에 144개국 중 30위, 2002년에 146개국 중 29위, 그리고 2001년 29위(146개국 중), 2000년 30위(143개국 중), 1999년 30위(143개국 중)로 나타났다. 여성권한척도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의 의회의석 점유율,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비율, 소득에 있어서 여성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정치·경제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한국은 2003년에 70개국 중 63위, 2002년에 61위(66개국 중), 그리고 2001년 61위(64개국 중), 2000년 63위(70개국 중), 1999년 78위(102개국 중), 1998년 83위(102개국 중)로 나타났다(박숙자, 2003 참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적으로나 여성들 스스로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내에서 여성의 리더쉽에 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단이라는 조직내에서 일반적인 리더쉽은 과업 중심적 리더쉽과 사회-정서적 리더쉽으로 구분되는데(Brown, 2000), 일반적으로 남성은 과업 중심적 리더쉽을 반면에 여성은 사회-정서적 리더쉽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요즘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속의 여성이나 여성 정치인들의 리더쉽을 분석하면서, 여성 특유의 장점, 즉 사회-정서적 측면의 리더쉽과 과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잘 해왔던 사회적 연결망 및 멘토링 등을 여성들도 갖춘다면 남성들보다 훌륭한 리더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나은영, 2003 참조).

한국의 사회, 문화, 제도 속에서의 여성의 세력화

지금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는 실증주의에 근거한 실험심리학의 주류와 문화와 심리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토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문화심리학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력이나 힘(power)을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과 같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속성으로 보고 하나의 사물처럼 객관적이고 탈맥락적인 접근으로 개념화하는 주류와 사회나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페미니스트적 시각이 대치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심리적 현상이란 생물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거나 기질과 같은 속성으로 환원시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나 문화 속에서 역사, 제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힘 혹은 세력은 사회의 주류나 남성 등이 가지고 있는, 타인을 통제하거나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혹은 부여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제도속에서 여성들이 세력화 혹은 권능화하기(혹은 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 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거시적으로는 사회제도 및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세력화 방안이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무력화 과정을 사회적 부류이자 기호적 속성을 가진 아줌마 집단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아줌마들은 남편들을 대신하여 생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오늘날 회자되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자갈치 아지메’ 또는 동대문 시장의 ‘또순이 아줌마’라는 별명은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줌마들은 한편으로는 가정 살림을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생의 과정에서 아줌마들도 처녀나 사모님처럼 자신을 치장하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싶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데, 이러한 아줌마들이 남성이나 아가씨처럼 행동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아줌마 집단들은 ‘아줌마답지 못하다’는 생각에 비난과 조소를 보내기 일쑤였다.⁸⁾ 이러한 측면에

8) 최상진 등(2001)은 연구를 통해 비록 아줌마와 대비되는 사회적 범주 대상으로 아가씨와 사모님 및

서 보면 제도적으로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조직에서도 여성들의 권위, 역할 및 지위 등이 과거에 비해 결코 나아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여성에 대해, 특히 한국 문화에서 아줌마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차별대우를 없애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아줌마들 스스로도 힘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서로 힘을 부여하거나 서로를 이끌어 줌으로써 세력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능화를 위해서는 아줌마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및 차별대우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아줌마의 호칭에 붙는 부정적인 수식어(category label)를 긍정적인 수식어로 바꾸는 의도적인 행동이 여성들에게 요구된다. 우리의 의식은 언어의 지배를 받으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변용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뻔뻔한 아줌마’, ‘평퍼짐한 아줌마’를 긍정적인 의미의 ‘부지런한 아줌마’ ‘알뜰한 아줌마’ 등으로 바꾸어 칭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행동적 측면에서는, 아줌마 스스로가 공공장소에서 질서나 차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엄마에 국한시켜, 남성의 사회적 범주로서 아저씨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아가씨에서 아줌마가 되고, 다시 구체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아줌마, 엄마로 분열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의 희생물이 되는 집단은 주로 여성이나 유색인종 같은 힘이 없거나 특출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여성 속에서도 이처럼 많은 하위집단들이 존재하고, 특히 아줌마라는 집단의 특성이 현실적이고 현저한 이유는 여성을 고유한 특성을 지닌 개인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성성(femininity)만을 지닌 존재로서 강요하고자 하는 한국사회 일반의 성 차별적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줌으로써 사회일반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줌마의 정보적 힘(information power)과 전문적 힘(expertise powe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줌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나 자녀교육 등에 관한 관심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이기주의나, 내 자식만을 위한 사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험하는 공공의 문제들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아줌마들이 압력단체로 작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갖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지역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활정치(life politics)를 실현하고 참여할 때 아줌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개선될 것이다(김경희, 2003 참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주의자들은 세력화의 과정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공유하거나 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세력화는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력화의 개념은 반드시 생태학적 측면에 근거한 개념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무력화되거나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여성들 스스로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혹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ing)을 구축하고, 리더로서 혹은 선임자로서 후진을 위해 선도자 역할(mentoring)을 해야한다.

사회 제도적으로는 아줌마의 세력화를 위해 여성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 아줌마’, ‘관광 가이드 아줌마’, ‘교사 아줌마’, ‘구의회 의원 아줌마’ 등 여성들의 직업

이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부여나 획득을 통한 ‘○○ 아줌마 만들기’ 전략은 아줌마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가진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아줌마를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보육시설 확충,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 생활을 위해 각 기업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할당제’나 ‘여성 고용 촉진(의무화)’ 등의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개인적, 집단적 혹은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아줌마들을 포함한 여성들의 문화는 창조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어사전 (1996). 동아메이트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김경희 (2003). 일상의 정치를 통한 여성의 Empowerment. 한국여성심리학회 동계심포지엄, 19-26.
- 김기범, 김지영, 최상진 (2001). 한국 아줌마론속의 사회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50-257.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나은영 (2003). 여성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권력. 한국여성심리학회 동계심포지엄, 9-18.
- 박숙자 (2003). 한국 정치에서의 여성 Empowerment의 과제와 전망. 한국여성심리학회 동계심포지엄, 1-8.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상진 (2000). 한국아줌마 무죄론: 한국아줌마론속의 사회심리와 약자누명씩우기 현상분석. 문화와 사람, 창간호, 162-184.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a). 아줌마의 사회적 표상과 역능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206-209.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b). 한국사회에서 아줌마의 사회적 표상과 아줌마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56-67.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한국 아줌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27-437.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eck, R. J. (1994). Encouragement as a vehicle to empowerment in counseling: An existential perspective. *Journal of Rehabilitation*, 60, 6-11.
- Brown, R. (2000). *Group processes*. Blackwell Publishers.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Farr, R. M. (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Blackwell Publishers.
-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ume II* (pp. 357-411). Boston, MA: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Franzoi, S. L. (1996). *Social psychology*. Madison: Brown & Bench Mark.

- Gilbert, D. T., Fiske, S. T., & Lindzey, G. (1998).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A: Oxford University Press.
- Mahoney, M. (1996). The problem of silence in feminist psychology. *Feminist Studies*, 22(3), 603-625.
- Robison, D. N. (1992). Science, psychology, and explanation: Synonyms or antonyms? In S. Koch, & D. E. Leary (Eds.), *A century of psychology as science* (pp. 60-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prague, J., & Hayes, J. (2000). Self-determination and empowerment: A feminist standpoint analysis of talk about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5), 671-695.
- Taylor, S. E., Fiske, S. T., Etoff, N. L., & Ruderman, A. J. (1978).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al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2000). *Social psycholog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Empowerment Strategies for Women in Korean Culture

Kibum Kim

Ji-Young Kim

Yang-Ha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In this paper, we'd like to argue that the power of women has been weakened by means of society and social institution in Korean culture. First of all, we reviewed how the power has been conceptualized in academic society compared feminists' viewpoint on power. The concept of power has been studied as a thing, which is objectified and decontextualized, and treated as a psychological attribute possessed by a person. The powerful person is always a normal, male, capitalist, and dominant class. In addition, those individuals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 abnormal, female, laborer, and subordinate class. However, feminists argued that the notion of power has to be conceptualiz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at is, the power as capacity or potentials will be transformed the weak into the strong through social relationship such as networking and mentoring. In Korean culture, there has been a discourse of middle-aged women, i.e. Adjumma. They are stereotyped as ugly, selfish, and impolite as well as mother-like representation such as warm, generous and frugal, and discriminated institutionally. Thus, to be empowered, women themselves have to develop their capacity or potential and make social network in order to support each other. Lastly, we suggest several strategies for empowering Korean women in terms of individual, interpersonal (intergroup) and societal level.

key words : Power, Empowerment, Social Institution, Culture, Social Discourse